

충청의 자랑, 반기문(潘基文) 유엔사무총장



권오덕 | 전 대전일보 주필

첫 인상, 겸손·온유·소탈하고 친화력 돋보여

충청출신 반기문(潘基文) 씨가 유엔 사무총장에 연임돼 앞으로 5년 간 세계의 대통령으로 더 일하게 됐다.

같은 충청인으로서 가슴 뿌듯하며 500만 충청인과 함께 축하를 드린다. 그는 지난 8월 9일 5박 6일의 일정으로 국민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만나고 여러 행사에 참석했다. 또 고향 충북 음성군을 찾아 지역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조상의 묘소도 참배한 후 돌아갔다.

필자는 2003년 9월 어느 일요일 충남 도내 모 골프장에서 처음으로 반 씨를 만났다. 나와 고교동기이며 반 씨와 외무고시 동기인 K군(전.멕시코대사, 전.청와대 외교보좌관)의 주선으로 당시 충남지사이던 심대평 국회의원과 함께 골프를 치게 됐다. 반 씨는 고향이 충북 음성군으로 필자의 선친 고향과 같은데다 연배도 비슷해 평소 친근감이 들던 차여서 반가웠다.

K군은 이날 차안에서 침이 마르도록 반 씨를 칭찬했다. 충주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외무고시(3회) 수석을 차지했다고 했다. 또 공무원사회에서도 항상 선두를 달렸고, 가는 곳마다 기록이란 기록은 모두 갈아치운 수재라고 소개했다. 그중 한해에 두 번이나 승진한 사건(?)은 지금껏 깨지지 않는 ‘외교부의 전설’이라고 했다.

반기문의 능력과 성실성에 빗대어 ‘반(潘)의 반(半)만큼 해라’는 말은 아직까지 일화로 남아 있다고 했다. 또한 그의 첫 인상은 겸손하고 온후하며 친화력이 돋보였다. 그래서 대화하기가 편했다.

그날 그늘집에서 나는 첫 대화가 인상에 남는다. 나는 반 씨에게 “청와대 생활이 어땠고, 또 노대통령을 모실만하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은 컴맹인데, 대통령이 컴퓨터를 너무 잘해 힘들다”며 웃었다. 컴퓨터를 전혀 못한다고 말하는 그에게 더욱 친근감이 들었다. 이어 노 대통령의 중국방문 일화를 소개했다.

사랑의 미로 개사한 ‘골프의 미로’ 적어달라고 요구해

북경대에서 학생들이 “중국인물 중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는 질문에 “모택동”이라고 말해 크게 당황했었다고 털어놓았다. 반 씨는 출국 전 이 같은 학생들의 질문을 예상해 “존경하는 인물을 묻거든 공자라고 답하라”고 자문해주었고, 고개를 끄덕였던 노 대통령이 느닷없이 “모택동”이라고 말해 당황했다는 것. 노 대통령이 그만큼 자기 주관에 뚜렷한 분이라는 얘기로 들렸다.

이어 그는 자기 딸과의 대화도 얘기했다. “오늘 아침 딸애와 대화하던 중 ‘여자가 그런 것도 못하느냐’고 했다가 ‘아빠는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을 하셨으면서도 아직도 성차별적인 말투를 쓰시냐’고 핀잔을 들었다”고 들려줬다. 가정에서 딸과의 사소한 대화까지 처음 만난 사람에게 털어놓는 그의 소탈한 성품에 감동(?)했다.

나는 인기가수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를 개사한 ‘골프의 미로’를 알려 줬다. 이 곡은 내 골프 모임의 주제가로 오래 전부터 자주 부르던 노래였다. 유명한 골프칼럼니스트가 패러디한 것으로 아주 재미있어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가사내용은 이렇다.

“(1절)그토록 연습을 했지만 골프는 알 수 없어요/드라이브 잘 쳐놓고서 퍼팅 하나에 울지요/(후렴)그대 작은 캐디야 비웃지를 말아라/나도 언젠간 싱글할 날 있단다/끝도 시작도 없는 골프의 미로여...“(2절)때로는 버디도 하지만 양파는 나를 울려요/돈내기에 멍든 가슴은 퍼팅 하나에 울지요/이하 후렴...

내 노래에 그는 아주 재미있다고 하며 가가대소(哈哈大笑)하더니 가사를 적어달라고 했다. 나는 “이 정도의 쉬운 가사도 못 외워요. 고시 1등 한 분이...”라고 한 번 더 되뇌어 주었다. 그리고 “청와대 인사비서관에 권선택(국회의원, 당시 청와대 근무)이란 사람이 있소. 내가 얼마 전 그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줬으니 그에게 배우십시오.”라

고 말하자, 그는 권 비서관을 잘 안다며 더 이상 가사를 주문하지 않았다.

이날 골프를 끝내고 가는 차안에서 K군은 “머지않아 반 보좌관이 외교장관 영순위로 장관에 임명될 터이니 지켜보라”고 말했다. 그는 불과 4개월도 안된 2004년 1월 마침내 외교부장관에 임명돼 나를 놀라게 했다.

충청 최고인물, 연임 5년 업적 남기고 금의환향하길

나는 그의 장관 임명을 축하하는 축전을 쳐 주었고, 그는 고맙다는 답장을 보내왔다. 나는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될 때도 축전을 쳐주었으나 연임될 때는 놓쳤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누가 뭐래도 해방 이후 충청도가 배출한 최고인물이다. 지난 1960년 4.19혁명 후 민선 대통령을 잠시 지낸 윤보선(尹潽善 아산출신)이 있지만 워낙 재임기간이 짧아(1년 7개월) 아무래도 뒤처진다. 또 총리를 지냈거나 대선후보에 나섰던 김종필(金鍾泌)과 이회창(李會昌) 등도 반 총장에는 미치지 못한다.

반기문 총장은 여러 명언을 남겼다. 그중에서 나는 그의 자서전 제목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를 가장 좋아한다. 다음으로는 ‘인생 최대의 지혜는 친절이다’, ‘금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맥이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라’가 맘에 든다. 평범한 듯하지만, 그의 인품과 성실성을 엿볼 수 있어 그렇다.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구촌 곳곳을 찾아다니고, 세계인 모두가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뛰는 그가 이 지역 충청인임이 못내 자랑스롭다. 연임기간동안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기고 금의환향하길 빈다. 70서너 살 쯤 되어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의 고향이며 필자 아버지의 고향인 음성에서 만나 격의 없이 술한잔 나누고 싶다.